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정경*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6. 7. 10(일) ~ 7. 3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알고마대학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세인트마리에 위치하고 있다. 출발하기 전에 구글에 알고마대학교를 검색했을 때 학교가 허름해 보여서 걱정을 했었는데 사진과는 달리 풍경이 너무 이쁘고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기도 좋았다. 학교에는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는 방학이라 그런지 너무 조용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아서 딱 좋았다.
수업	우선 수업은 같이 갔던 순천향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는다. 수업은 교실에서 하는 수업, 컴퓨터실에서 하는 수업 등이 있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두려워했었지만 수준에 맞게 질문해주시고 틀린 것이 있다 해도 틀린 부분을 고쳐주셔서 그다음부터는 틀리지 않고 영어를 더 잘 하게 될 수 있었고 'My pet peeve'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수업도 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날에는 어떤 활동을 할지 정하는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 과제는 주로 컴퓨터로 하는 과제가 많았다. 컴퓨터로 했던 과제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사진과 간략한 설명을 게시하는 과제가 있는데 하나씩 게시하고 마지막에 봤을 때는 정말 뿌듯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생님은 다들 친절하시고 학생들을 재밌게 해주셨다.
Activity	Activity는 봉사활동, 딸기 따는 활동, 'Colour blast', 등산, 모카신 만들기 등이 이 있었다. 봉사활동으로는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봉사활동과 로타리 축제에서 했던 봉사활동이 있다.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봉사는 한국과 관련된 것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이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젓가락 집기게임, 프라이팬 놀이, 딱지치기, 영어이름 한국어로 쓰기 등 여러 가지 활동했다. 컬러 블라스트는 마라톤과 비슷하지만 마라톤과 다르게 내가 뛰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색가루를 사람들이 뿌려주면 그걸 맞고 달리는 방식이다. 이 활동이 끝나고 서로 웃고 사진도 찍고 재밌는 활동이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자외선이 한국보다 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선글라스도 챙기고 반팔을 주로 챙겼는데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지만 계속 쓸 정도는 아니었고 비오는 날이나 비 온 다음날은 추워서 현지에서 긴팔을 사서 입었다. 평상시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습하지 않아서 땀이 나는 날도 별로 없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매우 안전하다. 이상한 사람만 따라가지 않고 가끔 버스비나 작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나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메일로 규칙이나 조심해야 할 점을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다. 가족의 구성원은 엄마, 오빠, 아빠, 홈스테이학생 1명이 있었다. 가족들은 다들 친절했고 배려를 많이 해줬다. 내가 있던 홈스테이 집은 홈스테이 학생과 가족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샤워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아 불편함이 없었다. 그리고 나의 홈스테이 집은 저녁을 빨리 먹는 편이라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을 따로 챙겨주셨다. 우리집은 매일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다. 저녁을 먹고 방에 있어도 되지만 나는 영화를 좋아해서 가족 다같이 영화보고 화목한 분위기였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아침 10시까지 등교였다. 나는 잠을 더 자고 학교에 있는 카페에서 아침을 사먹었고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싸주는 음식을 먹었다. 저녁은 가족들이 식사를 일찍 해서 따로 먹었는데 맛있었다. 하지만 라면이나 간단한거 챙겨가는 것이 좋다. 가끔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다른 홈스테이 집에서 파티를 열면 파티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있었다. 레스토랑은 팁을 지불해야한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홈스테이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한가지 방법은 25분 걸리지만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다녀 위험하고 나머지 방법은 집과 정류장이 가까워 안전하지만 학교까지 45분이 걸리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버스는 터미널에서 30분에 한 대씩 있고 6시가 넘으면 1시간에 한 대씩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824,90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간식	130000	Tax, Tip포함
쇼핑	300000	
면세점	150000	
기념품(선물...)	200000	
합계	약27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날씨가 비올 때 날씨랑 평소날씨랑 다르므로 겔옷을 1~2개정도 챙기는 것이 좋다.

홈스테이마다 규칙이나 습관이 다르므로 출국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다. 여권사본은 넉넉하게 챙겨야하고 홈스테이 가족의 주소를 프린트하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 가기 전에는 영어를 잘 하고 싶지만 공부해야지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몰라 여행회화 책을 챙겨갔지만 한번도 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영어에 대해 거리를 두고 영어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막상 생활에서 영어를 써야하는 상황이 오니 의사소통도 되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서툴게 말해도 옆에서 누군가 알아듣고 고쳐주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나는 캐나다의 문화를 배우고 했던 봉사활동이 제일 인상 깊었고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울 점이 많았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딸기 따기 활동



Colour blast



봉사활동



로타리 축제, 로타리 봉사하다가 그렸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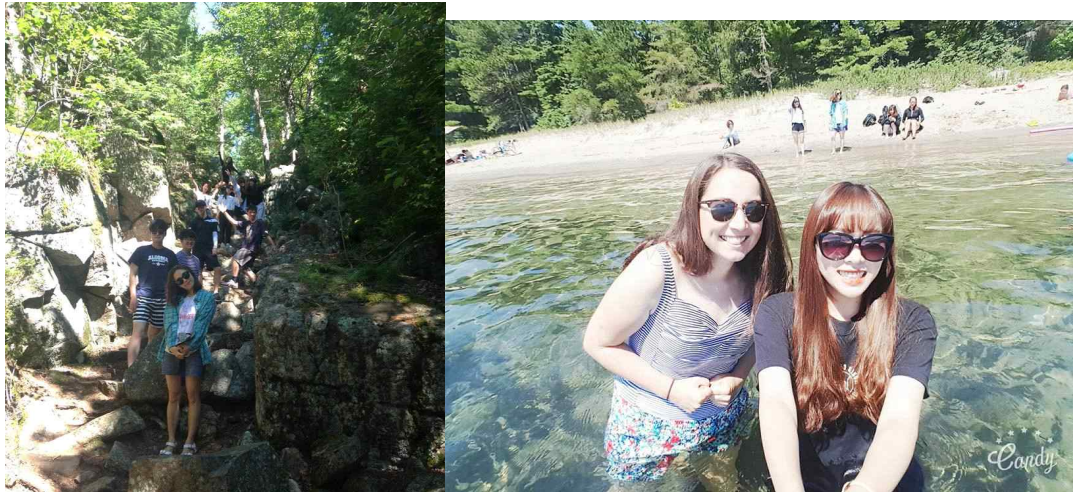
다른 홈스테이 집에서 초대 한 한국&일본음식파티



모카신 만들기



비행기 박물관



Agawa 바위랑 lake superior



홈스테이에서 먹었던 음식